

보도시점 2025. 9. 24.(수) 11:00
9. 25.(목) 조간

배포 2025. 9. 24.(수) 09:00

든든한 하루의 시작, 천원의 아침밥이 산단 근로자를 만납니다.

- 총 20개소 신청 중 16곳 선정(단체형 5곳, 개별형 11곳)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근로자의 건강한 식습관 확산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2025년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파일럿 사업」에 전국에서 20개소가 신청하였으며, 최종 16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근로자가 1천원 부담하면 정부가 2천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지방비와 기업 자부담으로 충당되는 사업이므로, 지자체와 기업의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바, 10월에 시작되는 파일럿 사업의 일정상 기업들의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번에 심사를 거쳐 선정된 16개소는 단체형 5개소, 개별형 11개소로 운영되며, 이 중 10개소는 기존에 조식을 제공하지 않았던 곳이다.

* 단체형 : 산단 입주기업 협의회를 통해 공동식당 운영하는 경우 해당 운영주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
개별형 : 식수인원 관리 정산 등 조식 운영 관리가 가능한 자체 개별 입주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

선정된 기업·협업체 소속 근로자는 자부담 1천원으로 기업 구내식당 또는 공동식당, 주문배달 등을 통해 오늘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조식을 제공 받게 된다.

< 농식품부장관 주재 현장간담회 중 산단 근로자 발언 내용 일부(9.18) >

(○○○ (주)농업회사법인 소속 근로자) 제가 워킹맘이라 그런지 하루 중 아침시간이 가장 바쁜 시간대예요. 아침에 아이 밥을 챙겨주면 정작 저는 밥을 챙겨먹을 시간이 없었는데, 국가에서 저희 조식을 신경 써 주신다고 하니 너무 기대됩니다.

그간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높은 현장 호응을 얻어 왔다. 올해는 이를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파일럿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현장 여건상 아침 식사가 취약한 산단 근로자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건강 증진과 함께 쌀 소비 확대라는 정책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이번 파일럿 사업을 통해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뒤, 내년부터 3년간('26~'28)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라며, “근로자의 든든한 아침밥 문화가 산업단지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2025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파일럿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담당 부서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1-1810)
		담당자	사무관	전창희 (044-201-1822)

- * 단체형 : 산단 입주기업 협의회를 통해 공동식당 운영하는 경우 해당 운영주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
 개별형 : 식수인원 관리, 정산 등 조식 운영 관리가 가능한 자체 개별 입주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

연번	지역	기업/단체명	운영유형
1	강원	(주)케이메디켄	개별형
2	경기	나비텍스타일	개별형
3	경기	디엑스솔루션	개별형
4	경기	(주)파코엔지니어링	개별형
5	충남	아산시득산농공단지협의회	단체형
6	전북	국가식품클러스터입주기업협의회	단체형
7	전북	사회적협동조합 양지뜰	단체형
8	전북	캐스코(주)	개별형
9	전북	(주)폴무원다논	개별형
10	전북	대륜산업(주)	개별형
11	전북	유한회사 주밀금속	개별형
12	경북	(주)경흥공업	개별형
13	경북	(주)귀뚜라미	개별형
14	서울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서울	단체형
15	광주	광주광산지역자활센터	단체형
16	대구	(주)S-Tech	개별형